

웹진

대학스포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웹진 | 2015. 05 Vol. 7



커버스토리

형제보다 더 형제같은
홍익대학교 배구부
이시몬 & 김형진

스포츠라이트

배드민턴계 절대강자,
한국 체육대학교 배드민턴부

동아리 열전

오늘도 우리는 공을 향해 달린다
동국대 FC 풋다걸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리러 볼 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훌륭한 선수들 곁에는 늘 위대한 감독님들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그동안 연락 드리지 못한 은사님께 감사인사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동요 <스승의 은혜> 발췌 인용-

Contents

04



커버스토리

친구보다 더 친구 같은
그들의 이야기
홍익대 **이시몬&김형진**

09



스포츠라이트

배드민턴계 절대강자,
한국체육대학교
배드민턴부

10



포토타임

축구_ U리그 4월 포토제닉 'SMILE'
농구_ 학생선수, "그땐 그랬지"
배구_ 1학년에서 4학년으로,
대학배구 변천사

대학리그소식

2015 전국대학배구리그 업&다운!

13

대학농구 POWER 랭킹!

15

2015 카페베네 U리그 PREVIEW

17

2015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 결산

19

페이스메이커

검도

21

동아리 열전

오늘도 우리는 공을 향해 달린다, 동국대 FC 붓다걸스

23

視視各各

역대 대학스포츠 기자단이 바라 본 대학스포츠리그

25

멘토를 만나다

아이스하키 독립구단 웨이브즈 김홍일 대표

27

그때 그 시절

‘월드스타’ 김세진 감독

29

KUSF NEWS

31

취재 후일담

32



친구보다 더 친구 같은 그들의 이야기

홍익대 이시몬 & 김형진

‘친구는 제2의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지내면서 친구보다 더 사이가 돈독해진 이들이 있으니 바로 홍익대의 든든한 주장 이시몬과 세터 김형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의형제 특집’을 구상하였고 대학리그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형제 같은 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홍익대 배구부 선수들이 가장 눈에 띄었다.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따뜻한, 실로 엄마 같은 모습의 이시몬과 장난기 가득하지만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배려심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한 김형진.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게 ‘찰떡궁합’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었던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시작해본다.

“형제 아닌 형제 같은 너”

인터뷰 사진 촬영을 위해 혹시 모르니 사복도 가져오면 좋겠다는 기자의 말에, 구체적인 의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도 둘은 티와 바지, 그리고 운동화까지 서로 어울리는 배색의 옷을 가져왔다. 어떻게 보면 사진에 잘 나오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 받는 색의 옷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화를 생각해서 가져온 그들의 옷을 보면서부터 ‘아! 역시 호흡이 척척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서로 무심한 듯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형과 아우 같은 모습이었다. 더 놀라웠던 건 실제로 둘 다 형제가

3남이라는 것. 공통점이 정말 많아 보이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재미있는 이 둘에게 우리가 의형제 특집으로 제대로 찾아온 것이 맞는지를 먼저 물어보았다.

먼저 이시몬은 “의형제 특집이다 보니까 친동생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동생이랑은 추억이 없는데 형진이랑은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동생이랑 있을 추억을 대신 해 준 것 같다. 말 그대로 의형제 같은 동생이다”라고 전했다. 김형진 역시 “나 또한 오히려 친형들보다 시몬이 형과 함께한 시간이 더 길고 추억도 많아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힘을 보탤다.

“대학생활 속 낭만과 현실”

사실 홍익대학교 배구부는 시즌 중 경기는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에서 치르지만, 숙소와 훈련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홍익디자인고 옆에 있다. 또한, 수업 역시 교수님들이 직접 숙소 근처를 찾아 체육부만 따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머릿속 캠퍼스생활과 현실은 많이 달랐다. 이에 대해 이시몬은 “대학생활을 캠퍼스라는 곳에 누리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 이번이 마지막 4학년인데, 시간이 맞다면 학교 축제라도 한 번 가보고 싶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한편, 힘든 훈련 속에서 대학이라는 세계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인 박종찬 감독에 대해서 이시몬과 김형진은 모두 “선수들 한 명 한명을 다 잘 챙겨주시고, 또 그 속에서 개인의 배구가 아닌 서로 도와서 전체가 하는 배구를 중요시하신다.”며, 퇴근도 반납하고 같이 생활할 정도로 열정적인 박종찬 감독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존재만으로 마음속 가득 찬 가족”

또한 이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 바로 이름만으로도 벅찬 ‘가족’이다. 중학교 때부터 숙소생활을 해온 탓에 가족과의 추억 또한 적었을 터, 그리움 또한 더욱 클 것이다. 김형진은 “운동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와 대회 시작 전에 오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때 가장 그립다. 자주 못 보니 대신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이라고 전했다. 이시몬은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가장 보고 싶다. 옆에 함께 있지 못해 불효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며 진솔한 심정을 담았다.

부모님께 전하는 메시지를 진행하자 김형진은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팀 동료들과의 시간이 더 많은 이들이지만 그렇기에 더 각별한 부모님. 훌륭한 대학선수로 성장하기까지 부모님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둘은 의외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 반대다. 운동을 하면서 알아서 잘 할 거라 생각하시는지 중학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 선택을 믿어주신다.” 부모님이 키워주신 자립심은 매사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내 삶의 반, 배구”

외모와 인성뿐만 아니라 배구인생마저도 닮은 그들이다. 지금의 포지션에 정착하기까지 다른 포지션을 경험해본 것이다. 라이트를 경험해본 세터 김형진과 레프트에서 센터로 변신한 이시몬이다. 그렇기에 특히 팀워크가 중요한 배구에서 배려하는





배구를 하는데 능하다.

이들은 벌써 10여 년 간을 배구와 함께 했다. 인생의 반을 함께한 배구. 어느덧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는 배구가 과연 본인들에게는 과연 어떤 존재일지 궁금했다. 이시몬에게 배구란 “배구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나의 배구 인생 속에는 감동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느끼게 해준다.”라고 했고, 김형진에게는 “배구를 한 세월이 안 한 세월보다 많기 때문에 삶의 전부라고 말해도 될 인생”이라고 전했다.

특히 드래프트를 앞둔 4학년 이시몬은 “이번 시즌은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그동안 해온 배구보다 더 알차고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개화(開花)를 넘어 만개(滿開)를 향하는 2015 시즌”

홍익대 배구부는 지난 추계대회에서 창단 첫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개화(開花)를 시작한 이들의 올 해 목표는 대학배구의 꽃이 되어 화려한 만개(滿開)를 하는 것이다. 이에 동계훈련에 앞서 전원이 머리를 밀었다.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밤톨머리 덕분에 강제(?) 외출금지의 효과도 있다며 웃어보였다.



다 함께 머리를 밀만큼 단합을 보이는 홍익대는 평소 ‘조직력’과 ‘팀워크’라는 말이 항상 빠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시몬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특출 나게 잘난 재주가 없어서 붙여주신 것 같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김형진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직속 동문들이 많아서 호흡이 더 잘 맞고 마음도 더 잘 맞아서 그런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 중에 호흡이 잘 맞는 이유. 코트 위 사령관이라고도 불리는 세터 포지션 김형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 해 신입생 때부터 주전으로 뛰어 온 김형진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형들에게 볼을 잘 올려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주전으로 뛰다 대학에 온 것이라 경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다.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올해 2학년이 되고 나서는 1학년 때보다는 여유가 생겼다”며, 이번 시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마지막 대학시즌을 맞이한 이시몬은 “4학년인 만큼 열심히 해서 우승도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만을 위한 경기가 아니라 팀을 위한 경기를 하고 싶다. 팀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고, 김형진 역시 “1학년 때보다 더 잘하는 게 목표다. 전체적으로 역량을 높이고 싶다. 작년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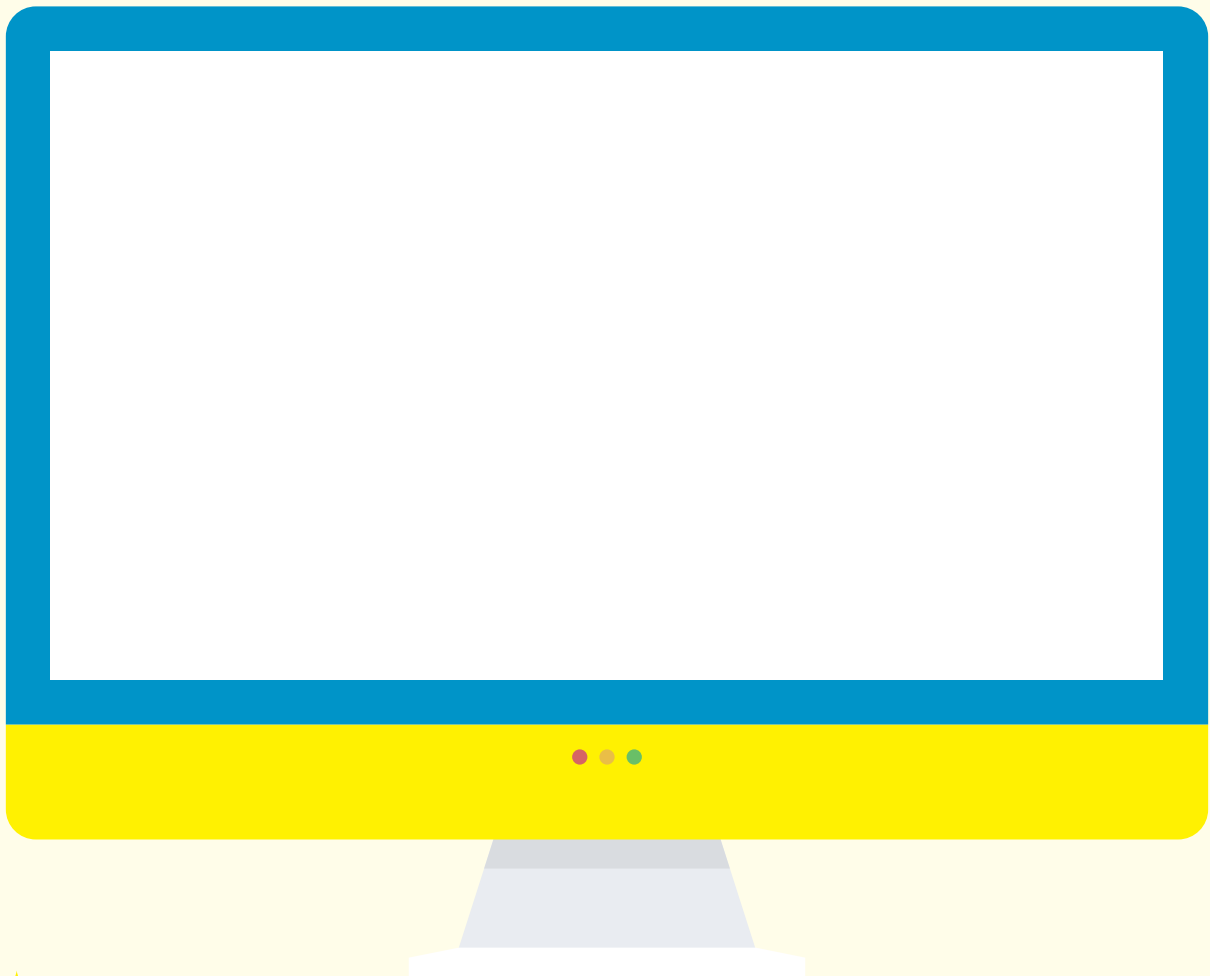
잔잔하면서 강한, 무엇보다도 다른 팀에 비해 흔들림이 거의 없는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홍익대 배구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뒤 5월에도 한창 활짝 피어있는 꽃들처럼 그들의 배구에도 만개한 꽃들과 같은 좋은 결과들이 있길 기대해본다.

글/김선우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숙명여자대학교 법학)

안미현 (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친구보다 더 친구 같은 그들의 이야기

홍익대 이시훈 & 김형진



배드민턴계 절대강자, 한국체육대학교 배드민턴부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배드민턴부는
지난 3월 강원 화천군에서 펼쳐졌던
2015 전국보철종별배드민턴리그전
(이하 '종별대회')에서 남자대학부 단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한체대 배드민턴부는
종별대회에서 2연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시즌을 '우승'이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시작한 한체대 배드민턴부를 만나
왕좌를 굳건히 지킨 비결을 듣고 왔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체대 배드민턴부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하남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체육관이었다. 올해 학교 체육관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훈련장소를 잃은 한체대 배드민턴부는 매일 이곳에 와서 훈련을 한다. 한체대 배드민턴부에 속해 있는 전체 인원은 35명. 선수 35명이 훈련하려면 코트가 최소 9개 정도는 필요한데 작은 체육관을 빌려서 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훈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체대 배드민턴부는 우승을 차지했

니 대단할 따름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의 경우, 대관시간이 정해져있는 데다가 선수들의 오전수업과 점심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또 몇몇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학교 밖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단체로 손을 맞추기엔 제약이 많았다. 배드민턴부를 지도하고 있는 한성욱 코치는 종별대회에서 대표팀 선수들의 공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미 많은 훈련은 하고 오는 터라 사실 운동을 시키기도 애매한데 선수들이 힘든데도 열심히 훈련

에 임해줘서 고맙죠. 대표팀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해줬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복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단식연습을 하지 않아서 단식에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자신이 많이 없어요. 제가 저도 되니까 자신 있게 해보자고 했어요. 물론 말은 저도 된다고 했지만 잘할 거란 믿음이 있었죠.(웃음) 선수들이 시합시간에도 틈틈이 단식연습을 해주고, 다들 훈련에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해 항상 배드민턴부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지도하고 있는 김연자 교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된 우리

한성욱 코치의 선수들을 향한 믿음은 물론, 한체대 배드민턴부는 선수들 역시 굳건한 믿음으로 뚝뚝 뭉쳐있었다. 함께 복식에서 호흡을 맞춘 지 3년이 된 3학년 김동주와 정재욱은 “코트 위에서 눈빛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며 끈끈한 팀워크를 과시했다. 평소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후위 플레이어인 정재욱은 “전위를 지키는 (김)동주가 더욱 편하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나서 한 걸음 더 움직이려 한다.”고 전했다.



3학년 김동주, 정재욱 선수

나아가 한체대 배드민턴부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최솔규를 향한 선수들의 신뢰 또한 두텁다. 최솔규는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단식우승을 차지했던 남다른 실력의 소유자. 그는 1학년 시절부터 남달랐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3학년 선배들을 제치고 우승을 거머쥐며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미래를 책임질 재목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학 2학년의 어린 학생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표팀에 차출되어 국제대회에서 실력을 뽐내고 있다.

최솔규에 대한 선수들의 강한 믿음은 종별대회 결승에서 빛을 발했다. 한성욱 코치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이 가장 어려운 경기로 꼽았던 동의대와의



1학년 김정호 선수

결승전. 그와 함께 결승에 나섰던 김동주는 “(최)솔규가 믿음직한 친구라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라며 우승의 순간을 떠올렸다. 동료로 하여금 우승을 직감토록 하는 ‘최솔규’라는 세 글자가 가진 무게는 꽤나 묵직했다.

집중과 몰입

한성욱 코치가 평소 훈련에서 강조하는 것은 ‘집중’과 ‘몰입’이다. 선수들에게 늘 ‘연습도 게임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몰입하라’고 이야기한다. 덧붙여 한성욱 코치가 선수들에게 바라는 점은 더 절실해지는 것이다. “제가 운동을 했을 때보다 절실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필요해요. 한 번이라도 코트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죠. 사실 단체전의 경우에 모든 선수들이 엔트리에 드는 것이 불가능한데 엔트리에 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 나중에 혹시 그만두더라도 후회가 없겠죠.”

한코치의 기대에 부응하듯 선수 개인 역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다. 새벽운동과 오전 수업, 이어 오후 운동까지 특별한 여가 시간도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한체대 배드민턴부. 이 팀의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닐까.

전국체전 4연패로 가는 길

이제 곧 졸업을 앞둔 3학년 김동주, 정재욱과 이제 막 한체대의 막내로 발을 들인 김정호의 목표는 하나다. 바로 전국체전 우승. 특히



한성욱 코치

김동주와 정재욱의 경우 1학년 때부터 전국체전 2연패를 함께했기에 전국체전에 대한 욕심 또한 남달랐다. “4학년 때까지 4연패를 하고 졸업하고 싶어요.”라며 강한 의지를 불태우는 두 남자. 이에 막내 김정호 역시 “다음 목표는 전국체전 우승”이라며 힘을 보탰다.

“배드민턴의 스피드가 정말 좋아요.”

네트를 사이에 두고 빠르게 오가는 셔틀콕, 그리고 그 주위에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은 우리가 일상에서 손쉽게 접하는 배드민턴과는 사뭇 다르다. 나른한 봄의 끝,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신선한 자극이 필요한 이라면 한국체육대학교 배드민턴부의 짜릿한 플레이를 찾아 떠나보는 것을 어떨까.



글/김보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김윤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 150427 건국대 vs 한남대

터치라인 바깥에서 교체투입을 기다리던 건국대 한지원 선수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14번 최병길 선수와 교체되었는데, 무더운 날씨로 인한 짜증+더 뛰고 싶은 마음(?)이 얼굴에 여실히 드러난 동생을 보며 물을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던 한지원 선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김포토's 코멘트

한지원 선수는 이날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를 치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선발로 나서지 않았지만 경기 전과 하프타임 때 즐겁게 몸을 풀었고 다시 그라운드에 오를 때에 이와 같은 환한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 본인도 인정한 인생샷!

U리그 4월 포토제닉

'SMILE'



☆ 150424 송실대 vs 예원예대

송실대 김양모(좌) 선수와 정찬용(우) 선수가 경기 전 몸을 풀면서 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둘은 같은 1학년으로 평소에도 친한 사이이지만 특히 경기가 열렸던 이 날은 김양모 선수의 생일로 더욱 기분 좋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40여 일 만에 홈에서 2:0으로 승리를 거둔 송실대. 선수들은 팀의 두 번째 득점이 터진 직후 김양모 선수에게 달려가 속칭 '생일빵'을 선사했습니다.

*김포토's 코멘트

본 사진을 촬영한 기자 역시 경기 다음 날인 4월 25일이 생일이었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다른 기자와 생일을 자축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기 전 가이드북을 살펴본 중 선수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들고 김양모 선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공격포인트가 나왔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홈에서 값진 승리를 따내면서 기분 좋게 생일을 맞이한 김양모 선수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 150412 Behind-U 시리즈

기자 인터뷰 도중 @영남대

블로그팀 김유미 기자의 4월 기획기사의 인터뷰이인 영남대 정원진 선수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갔는데, 2월에 있었던 춘계대학 축구연맹전 준결승전에서의 '승부차기 실축' 당시의 소감, 라이벌을 묻는 질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기자가 제기한 '정원진 무적설(無敵說)' 등의 대목에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포토's 코멘트

오랫동안 지켜봐 온 팬의 입장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장장 50분에 걸친 긴 인터뷰 끝에 원하는 답변들을 모두 얻어낼 수 있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때로는 선수를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던 선수의 재치를 엿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인터뷰 후 식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대부분은 OFF THE RECORD!

글 · 사진/ 김유미(KUSF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팀)



한양대 한상혁

지금도 몸이 마른 것 같은데 저때는 훨씬 더 마른 것 같다. 하지만 풋풋하고 확실히 어려보이는 것 같다. 그때는 막내였지만 그래도 1학년 때가 가장 부담 없이 편하게 농구했던 때였던 것 같다.



1학년



4학년

학생선수, “그때엔 그랬었지”

동국대 서민수

지금도 몸이 꽤나 마른 편이라 생각되는데 지금 1학년때 사진을 보니 더 말랐던 것 같다. 저런 마른 몸으로 어떻게 시합을 뛰었는지 모르겠다. ^^



1학년



4학년



1학년에서 4학년으로, 대학배구 1번전신사

2012년, 대학리구에 갓 발을 들여놓은 장난꾸러기 1학년 새내기들은 3년이 지난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 주장 자리를 꿰차며 각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새롭게 합류한 1학년 신입생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4학년 선수들! 그들의 1학년은 어땠을까. 그때 그 시절, 대학배구리그의 풋풋한 과거를 찾아 떠나보자.

홍익대학교 이시온

1학년 ●



● 4학년



수줍게 '백인백인($\geq \wedge \leq$)'을 하던 새내기 소년은 어느덧 홍익대의 주장이 되었다. 함께이지 아니하면 의리가 없다며 야식도 혼자서 절대 안 먹는다느니. 의리 배배면 시체인 이 남자. 홍익대를 바꾸는 부드러운 힘! 나날이 단합되어가는 홍익대 그 중심에는 이시온이 있다! #홍익대를 들었다 _ 댔다 #축하해 _ 시온이형

* * *

성균관대학교 김병욱

1학년 ●



● 4학년



있고 지냈던 1학년 시절의 사진을 보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꺼버린 성균관대 김병욱. "정말 부끄럽다"며 그 순간의 포즈를 재연하는 데에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1학년의 풋풋함을 4학년의 훈훈함으로 업그레이드시킨 그. 유니폼에 추가된 주장 마크 역시 눈길을 끈다. 명실상부한 성균관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김병욱의 빛나는 대학리그 마지막 해를 기대해도 좋다.

* * *

인하대학교 황두연

1학년 ●



● 4학년



앞의 두 선수들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포즈를 취했던 황두연의 선택은 역시 현명했다. 지극히 짧은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듯 이제는 1학년의 상징(?)과도 같은 짙은 머리카락이 벗어났다. 어느 사진이 1학년 시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싱그러운 외모를 자랑하는 황두연. 대학배구 최강 동안 인증!

2015 전국대학배구리그 업&다운!

대학배구리그가 시작한 지도 어느새 2달여째, 참가하고 있는 10개 팀은 매 경기 울고 웃으며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겪고 있다. 유행가 가사처럼 이들의 “위아래 위위 아래” 업&다운을 살펴보자.

[A조 - 경기대, 홍익대, 한양대]

▶경기대 UP!



지난해 리그를 5위로 마무리하며 ‘최강 경기대’ 명성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경기대가 달라졌다. 이상렬 감독마저도 정바다, 이민욱 주축 선수들의 얼리 드래프트로 올해 리그는 더욱 우려라고 표했지만 겸손에 불과했다. 리그 초반부터 무섭게 몰아치며 승점 11점에 4연승으로 리그 선두에 올라있다. 특급신예 황경민의 등장과 정동근-안우재로 이어지는 더욱 안정된 좌우쌍포가 경기대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4월 13일에 열린 홍익대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하며 자신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52.73%의 성공률에 34득점을 한 안우재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눈에 띈다.



▶홍익대 UP!



홍익대의 경우 3승 1패 승점 10점으로 시작이 좋다. 하지만 정작 경기를 뒀던 선수들은 “결과는 만족스러울지 모르나 과정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패배인 경기대전에서도 풀

세트로 승점 1점을 따내며 선두를 향해 바짝 쫓아가고 있다. 박종찬 감독은 타 팀보다 신장이 작기에 수비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세트 평균 4개의 디그를 성공시키며 디그 부문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리베로 백광현이 홍익대 특유의 조직력에 힘을 더한다. 슬로우 스타터라는 특징을 고려해 앞으로도 더욱 기세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양대 DOWN!



신춘삼 감독의 부임으로 새 출발을 한 한양대는 주전 세터였던 이승원의 프로 진출로 세터에 비상이 걸렸다. 이 자리를 채워준 것은 다름 아닌 공격수 출신의 박민범이었다. 순간순간 공격 득점에도 가세하며 새로운 복병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하지만 토스 면에서는 아직 손발이 맞지 않는 탓인지 연패 끝에 17일 충남대전에서 리그 첫 승을 거두며 다소 늦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센터 김재휘는 실력뿐 아니라 신장, 분위기 메이커 면에서도 미친(?) 존재감을 드러낸다. 1승 4패로 리그 5위에 머물러 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을 한양대의 사자후(獅子吼)를 기대해보자.



[B조 - 경남과기대, 성균관대, 중부대]

▶경남과기대 UP!



경남과기대가 180도 달라졌다. 신구조화를 완벽히 이뤄내며 공격, 수비력은 물론 서브까지 고루 갖춘 모습이다. 지난 4월 17일, 성균관대와의 리턴매치에서 강한 서브를 앞세워 셋아웃 승리를 거둔 경남과기대는 2연승으로 제대로 분위기를 탔다. 현재 득점과 서브 부문 1위에 올라 있는 김인혁이 팀 에이스로 자리 잡고 있고 김태완, 황동선, 박형경 등 1학년들의 경기 감각이 올라오며 흠집을 곳 없는 조직력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경남과기대는 남은 예선리그 경기 모두를 홈에서 치른다. 지난 1차전에서 패했던 인하대, 중부대에 신승을 거두며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켜봐도 좋다.



▶성균관대 UP!



B조의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성균관대의 시작이 좋다. 리그 시작과 동시에 4연승을 달리며 B조 1위에 올랐다. 특히 라이벌인 인하대와의 맞대결에서 폴세트 점전 끝에 승리를 따내며 우위를 점했다. 주장 김병욱이 확실한 득점 원으로 맹활약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이시우의 수비 역시 탄탄하다. 신예 세터 황택의 또한 768 담대한 경기 운영으로 상대 블로커들을 농락하고 있다. 경남과기대에 패하며 연승이 끊긴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분위



기 반전이 가능한 팀이다. 하지만 현재 김상우 감독이 프로팀의 러브콜을 받아 사령탑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성균관대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부대 DOWN!



B조의 다크호스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중부대는 에이스 지원우의 부재가 뼈아프다. 이번 시즌 단 하나의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한 지원우의 빈자리를 함형진, 신장호 등이 채워내기 위해 분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공격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이에 더해 센터 김량우가 지난 경남과기대전에서 발목 부상을 입으며 전력에서 제외되었고 세터 김동훈 역시 흔들리는 상황이 많다. 5월 예정된 2015 제1회 아시아남자 U-23 선수권대회에 함형진을 포함한 4명의 선수가 참가해 부상 이외에도 추가적인 전력 이탈이 예상된다. 메워야 할 빈틈이 많은 만큼 특유의 조직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중부대다.

글/김선우(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대학스포츠블로그 DB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대학농구 POWER 랭킹!

(2015년 4월 2일 ~ 4월 25일)

4월의 베스트 팀

경희대 (2승)



김철욱의 부상이라는 악재를 맞은 경희대는 생각보다 고난을 잘 헤쳐 나가고 있다. 김철욱의 공백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우선 리바운드를 봐도 그렇다. 선두인 연세대와는 무려 경기당 10개의 차이가 있다. 블록 역시 하위권에 처져 있다. 이런 약점을 메꾸는 것은 팀의 짜임새, 그리고 빠른 손이다. 경기당 스틸이 수위권인 데다 턴오버는 고려대 다음으로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리바운드로 인해 밀리는 공격 기회를 뺏고, 내 공격기회를 지키는 것으로 만회하고 있는 것이다.

주장 최창진은 지난 2년간의 부침을 뒤로하고 맹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당 어시스트, 스틸이 모두 1위다. 하지만 외곽 슈트의 부족을 스스로 알기 때문일까. 4경기를 치르며 시도 자체를 1번밖에 하지 않았다. 한희원은 상대팀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슈트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문제. 연세대전에서 12개 중 3개, 상명대전에서 6개 중 1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다. 192cm의 최승욱은 줄지에 굵은일을 도맡게 되었다. 끝밀 싸움을 하기는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다하며 경희대에 빠져선 안 될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작년 비슷한 역할을 했던 배수용이 공격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과 달리,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공격 역시 눈에 띈다.

김현국 감독은 5명이 모두 공격에 참여하고 누가 투입되어도 유기적으로 플레이가 이어지는, 이른바 하나 된 플레이를 강조해왔다. 올해도 최창진, 한희원, 최승욱이라는 큰 틀 아래 성건주, 맹상훈, 이건희 등이 고루 출전하고 저마다 제 몫을 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김철욱이라는 팀의 한 축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가 좋은 경기력을 보인다는 것은 이런 하나 된 플레이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 할 수 있겠다.

4월의 위스트 팀

성균관대 (2패)



성균관대는 올해 들어 70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한 번도 없다. 평균 득점도 60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마땅한 식스맨도 없다. 확실히 졸업생들의 공백이 큰 데다 생각지 못한 부상자로 인해 주전이 대거 이탈해서 경기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 많다.

성균관대의 4월 두 경기는 성균관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높이에서 압도적인 연세대를 상대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56-28로 압도적으로 밀리며 시즌 최저 득점인 46점을 기록했다. 건국대전에서는 번갈아 가며 나온 신입생 가드들의 활약이 미미했고 후반 들어서 경기가 너무 밀렸다. 선수들의 경기경험은 점차 쌓이고 있지만, 첫 승 신고는 멀기만 하다.

이달의 경기



중앙대 vs 동국대

중앙대와 동국대 간의 경기는 4강권을 가능해볼 수 있는 경기였다. 물론 교류전의 결과에 따라 한쪽 리그에서 3, 4위가 다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별 2위를 차지한 팀이 6강 직행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초반부터 동국대의 흐름으로 흘러갔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대현과 김승준이 각기 8득점을 올렸고 다른 선수들도 고루 득점에 가담하며 1쿼터에만 22득점을 올렸다. 반면 중앙대는 동국대의 수비에 막혀 공격 제한시간에 쫓긴 공격을 이어갔고, 외곽 슈트도 번번이 림을 빗나갔다. 중앙대가 점수 차를 좁힌 건 3쿼터 들어서였다. 박지훈을 비롯해 박재한, 정인덕의 득점이 뒤따랐다. 4쿼터 들어서도 중앙대의 공세는 계속되었고, 결국 중앙대가 1점 차 역전하기도 하는 등 경기는 혼전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중앙대는 막판 외곽 슈트 다시 림을 외면했고, 동국대는 끝밀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올리며 승부가 갈렸다. 77-72 동국대의 승리였다.

동국대는 경기 초반 리바운드 싸움에서 자신들의 장점을 살린 데다 외곽에서 의외의 한방을 보여주며 승기를 이끌었다. 반면 중앙대는 이전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박지훈의 외곽이 침묵하며 아쉬운 결과를 안았다.

4월 랭킹!

1	고려대	3승	—
—	연세대	3승	↑
3	경희대	2승	—
—	동국대	2승	↑
5	건국대	1승 1패	↓
—	한양대	1승 1패	↑
7	단국대	1패	↓
—	조선대	1패	—
9	상명대	2패	↓
—	중앙대	2패	↓
—	명지대	2패	—
—	성균관대	2패	—

4월의 핫 플레이어

최준용



4월 기록 : 평균 35분 21초 출전
19.3득점 10리바운드
3어시스트 2.3스틸

올해 연세대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최준용이다. 비록 기복이 있긴 하지만 최준용은 자신이 해줘야 할 때를 확실히 안다. 그런 게 바로 팀의 에이스 아닐까?



이제는 나의 시대, 고려대학교 강상재

2015 대학농구리그 개막전, 고려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건 이종현이었다. 하지만 연세대에 밀리던 흐름을 바꾼 이는 따로 있었다. 바로 강상재다. 신입생 때부터 식스맨으로 쏙쏙히 활약하던 그가 고려대의 새로운 해결사로 돌아왔다.

쉬운 길을 뒤로하고 안암으로 향하다

같은 학번의 이종현-최준용이라는 특급 듀오에 가리긴 했지만 강상재 역시 초고교급 유망주였다. 웬만한 대학에선 즉시 경기에 나설 수 있었다. 실제로 다른 대학에서도 입학 제의가 왔다. 하지만 그는 이승현이라는 걸출한 선배가 있는 고려대를 선택했다. “사실 그쪽으로 가려는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부모님이 농구 이후를 보면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낫다고 설득하셨고 저학년 때는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뛰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서 고려대로 최종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그는 식스맨으로 뛰는 길을 선택했다. 한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기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이 배우고 경기를 조금씩 뛰어도 기량이 발전하리라 믿었기에 개의치 않았다.

2년간의 기다림, 그리고 도약

그렇게 2년이 지났다. 그간 식스맨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만큼 연습이 따랐기에 가능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체력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웨이트트레이닝도 많이 했고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작년에는 미스만 하지 말자는 생각이었어요. 올해는 이제 주전이니까 내가 공격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개막전 전반처럼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놀려 제 플레이를 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도 마음가짐의 변화는 기록에 그대로 나타났다. 평균 득점이 작년 두 배 가까운 15득점으로 늘었다. 동국대전에서는 신입생 때 한번 기록한 후 보지 못했던 20+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상재는 아직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아직 한 70점 80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야투 성공률이 부족하고 자유투 성공률도 낮아요. 승현이 형이 있을 때는 점전인 경기가 많이 없었거든요.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그러나 지켜보는 고려대 팬들에게 그 빈자리는 생각만큼 크지 않다. 지난 2년간의 기다림을 뒤로하고 한 단계 도약한 그가 있기에.

올해도 고려대의 목표는 전관왕이다. 그러기 위해선 강상재의 맹활약은 필수불가결 요소다. 이민형 감독은 이승현이 없을 때도 이종현이 없을 때도 강상재를 키플레이어로 꼽아 왔다. 그리고 이제 이승현은 졸업하고 없다. 바야흐로 강상재의 시대가 열려야 할 때다.



2015 카페베네 U리그 PREVIEW

지난 3월 13일, "2015 카페베네 U리그"(이하 'U리그')가 개막했다. 봄과 함께 시작한 U리그는 10권역으로 나뉜 총 78개의 팀이 대격돌을 펼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U리그의 골문을 시원하게 연 U리그 첫 경기, 첫 승리 팀의 첫 골의 주인공들을 만나보도록 하자.

1권역

1권역에서 첫 경기, 첫 승리팀, 첫 골의 영예는 상지대 채광훈(2, DF)이 차지했다. 상지대는 3월 13일 13시, 순복음총회신학교와의 경기에서 7-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다. 그리고 채광훈의 골은 U리그 개막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들어간 골이었다. 전반 1분,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채광훈에게 좋은 패스가 연결됐고, 채광훈은 첫 터치로 수비를 제치고 첫 득점에 성공했다. 특이하게도 첫 경기 첫 골의 주인공, 퍼스트맨 채광훈은 수비수라는 점이다. 채광훈은 수비수이지만 더 많은 골을 넣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당찬 포부도 내놓았다.

2권역

2권역의 퍼스트맨은 청주대학교 정우빈(11, FW)이다. 청주대는 3월 13일 15시, 충북대와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정우빈은 이날 경기에서 선취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전반 37분 왼쪽사이드에서 이무영(10, FW)의 원발 크로스 받은 정우빈이 골대 앞으로 달려 들어가며 오른발 슈팅골을 성공시켰다. 이후 정우빈은 "리그 첫 시합에 이렇게 골을 넣게 되어서 기쁘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골도 중요하지만 축구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뛰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3권역

3권역의 주인공은 지난해 대학 입학 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건희(10, FW)이다. 김건희는 U리그 첫 경기부터 고려대 간판 공격수로서 그 진가를 보여줬다. 3월 13일 15시, 고려대 녹지운동장에서 펼쳐진 열린사이버대와 경기에서 경기 시작 2분 만에 선취골을 넣었다. 코너킥 상황에서의 헤딩골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김건희는 멀티골을 넣으며 팀의 4-1 대승에 크게 기여했다. 김건희는 첫 골의 소감으로 "팀의 첫 골을 넣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리그 시작하자마자 골을 기록해서 마음이 좀 편해요. 이번 시즌 개인적인 목표는 한 경기 한 골이고요. 공격수인 만큼 팀에 공격 포인트로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4권역

4권역 첫 골의 주인공은 원광디지털대학교 박상현(23, MF)이다. 원광디지털대는 3월 13일 13시 강팀 동국대와의 경기에서 값진 2-0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에서 나온 두 골 모두 박상현의 것이었다. 박상현은 전반 3분, 대단히 이른 시간에 첫 골을 성공시키면서 팀의 승리를 예견했다. 역습 상황에서 중거리슛으로 넣은 골이었다. 이후 전반 43분, 추가골을 밀어 넣으며 원광디지털대는 이날 승리에 뼈대를 박았다. 박상현은 골 찬스가 날 때마다 최대한 골을 많이 넣어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5권역

5권역 퍼스트맨의 영광은 경희대학교 박인혁(15, MF)이 차지했다. 경희대는 3월 13일 14시, 서울디지털대와 경기에서 3-2로 승리했다. 서울디지털대의 손정우(21, DF)가 후반 10분 선제골을 넣었으나 곧바로 후반 11분, 백승훈(17, FW)과 패스를 주고받던 박인혁이 감아 찬 볼로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1-1 동점 상황에서 다시 서울디지털대가 1골을 더 추가했으나 박인혁이

후반 34분, 또 한 번 동점골을 터뜨렸다. 황순신(11, MF)이 올려준 크로스를 헤딩골로 성공시킨 것이다. 이후 경기 종료 직전 안정훈(20, MF)이 마지막 세 번째 골을 밀어 넣으며 경희대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다. 후반에 교체되어 들어간 박인혁이 두 골을 기록하면서 이 교체는 경희대 승리의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이에 박인혁은 “공격수로서 득점을 해야 하는 게 되게 큰 임무인데 첫 경기부터 2골을 넣어서 무척 만족스러웠어요.”라며 승리의 기쁨을 전했다.

6권역

전북과 충남 지역의 학교들이 속한 6권역에서는 전주대학교 권지성(24, FW)이 개막전 축포를 쏘았다. 상대는 충남의 글로벌사이버대학교로,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하지만 권지성의 침착함은 빛났다. 권지성은 전반 27분, 패스받은 골을 침착하게 밀어 넣으며 골로 연결시켰다. 이후 글로벌사이버대의 공격이 거세졌지만 전주대는 협력 수비를 보여주며 권지성의 첫 골을 지켜냈다.

7권역

3월 13일 11시, 상무시민공원에서 펼쳐졌던 7권역의 첫 경기에서는 조선대학교 강영제(6, MF)가 첫 골을 맛봤다. 전북 서남대학교를 상대로 박빙의 대결을 펼치던 조선대는 경기 종료 5분 전, 강영제가 극적으로 골을 넣음과 동시에 한껏 환호할 수 있었다. 여러 번의 선수 교체 속에서 곳곳이 90분의 풀타임을 완벽히 소화해낸 강영제는 이날의 진정한 MOM이었다.

8권역

8권역 퍼스트맨은 같은 시각 펼쳐졌던 다른 경기의 첫 득점 선수보다 이른 시간에 득점을 한 목포과학대학교의 강성호(22, MF)가 되었다. 3월 13일 15시에 펼쳐졌던 전남과학대와 전남목포과학대의 경기에서 강성호는 전반 15분에 첫 골을 터뜨렸다. 광주 남부대와 전남 한려대의 경기에서 남부대 김태환(3, DF)도 첫 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견인했지만, 강성호의 득점 시간보다는 뒤처져 아쉽게 퍼스트맨의 영광을 놓쳤다. 한편, 강성호의 득점에 힘입은 목포과학대는 정제민(10, MF)이 결승골까지 성공시키며 2-0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

9권역

9권역에서는 골 잔치가 펼쳐졌다. 3월 13일 15시, 안동 강변 인조구장에서 진행됐던 경북 안동과학대와 대구 수성대의 경기에서 양 팀이 각각 5골, 그리고 2골을 기록하면서 첫 경기부터 무려 7골이 오가는 골 퍼레이드를 펼쳐졌다. 이 중 안동과학대학교의 정지호(7, MF)는 전반 20분에 시도한 슈팅을 깔끔하게 골로 연결시키며 가장 먼저 득점했다. 이후 정지호는 후반 5분에 손거산(46, MF)과 교체되어 나갔고, 안동과학대는 후반전에도 두 골을 몰아치며 확실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10권역

10권역에서 승리하며 기분 좋게 시작을 끊은 팀은 부경대학교였다. 동원과학기술대와의 첫 경기에서 전반전에만 3골을 기록한 부경대는 이날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전반 28분, 팀에 첫 골을 선사한 김문석 (10, FW)이 공격의 물꼬를 텄고, 연이어 32분과 42분에도 골망을 가르며 3-1 승리를 거두었다. 동원과학기술대가 후반 70분에 추격골을 넣었지만 역전의 실마리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2015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 결산

인하대학교, 이번, 사이클링 히트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 군산, 목동, 신월 야구장에서 <2015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가 펼쳐졌다. 총 23개의 대학이 참가한 대학 야구의 시즌 첫 대회에는 인하대학교가 우승, 경남대학교가 준우승을 거두며 그 막을 내렸다.

1st Key Word.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가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2015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서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인하대학교는 작년 번번이 우승을 길목에서 동국대학교에 가로막히며 준우승을 차지해야 했지만 이번 대회 예선전에서 다시 만난 동국대학교에게 3대 1로 승리를 가져오며 작년의 패배를 말끔히 지워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인하대학교의 에이스 투수 임서준(투수, 4학년)은 6이닝 동안 3피안타 1사사구 9탈삼진 무실점 무자책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큰 공헌을 했다.

2nd Key Word. 이번

이번 대회의 최대 키워드를 뽑으라면 당연히 '이번'이 아닐까? 대회가 시작되기 전, 각 대학은 4학년들을 프로로 떠나보내고 신입생을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 준비를 마쳤다. 준비 이후의 첫 대회인 <2015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은 새 시즌에 대비한 각 팀의 전략과 선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는 시험 관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이번 대회에서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건국대학교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4팀이었다. 하지만 작년 4관왕을 달성하며 대학야구의 괴물팀으로 불리던 동국대학교가 12강에서 경남대학교를 상대로 3대 4로 패하며 탈락했고 인하대학교와 함께 결승에서 맞붙을 것으로 꼽혔던 홍익대학교는 경남대학교를 상대로 3대 7 역전패를 당하며 경기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반면 경남대학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번 대회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남대학교는 탄탄한 마운드와 한번 터지면 멈출 줄 모르는 타선을 앞세워 우승 후보인 동국대학교와 홍익대학교를 무찌르고 당당히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인하대학교에 0대 5로 패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야구팬에게 경남대학교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3rd Key Word. 싸이클링 히트

한 타자가 한 경기에서 단타와 2루타, 3루타와 본루타를 모두 쳐내는 ‘싸이클링 히트’가 이번 대학야구 춘계리그전에서 등장했다. ‘싸이클링 히트’는 33년 KBO 리그 역사에도 단 16번밖에 나오지 않은 진귀한 기록이다. 기록의 주인공은 단국대학교 장진혁(내야수, 4학년). 4월 4일 신월야구장에서 열린 단국대학교와 계명대학교의 경기에서 1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한 장진혁은 1회 초 계명대 선발 투수 박내현의 5구째를 중전안타로 연결했고 이후 세 번째로 들어선 타석에서 장타를 쏘아 올렸다. 마지막 3루타만 남겨 놓은 상황. 7회 초 다소 힘없이 날아간 공이 계명대학교 좌익수의 다이빙 캐치 실패로 3루타로 이어졌고, 이로써 장진혁의 손에서 7년 만에 기록된 대학야구 22번째 ‘싸이클링 히트’가 완성됐다.

감동과 환희, 아쉬운 순간들이 함께했던 <2015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전>. 춘계리그전은 끝이 났지만 이 끝은 2015 대학야구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대학야구는 앞에 놓인 또 다른 5개의 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어지는 대회에서 대학야구가 써내려 갈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글/안수진(KUSF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팀)

사진/이한정(KUSF 대학생 기자단 블로그팀)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2 TV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는 배우 송재림(남자 주인공)이 검도 사범님으로 등장해 매 회 방송마다 큰 이슈를 낳고 있다.

검도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배우 송재림의 검도 스승 정재승 관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도에 대해 알아보자.

Q 검도를 배우려 정보를 찾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검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A 우리나라의 검도 종류는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2개의 단체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검도는 대한검도와 해동검도로 나뉘는데 먼저 대한검도회는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 체육회인 경기도 체육회, 서울시 체육회처럼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인정받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검도가 대한검도회입니다. 전국체전, 경찰 검도대회 등의 공신력 있는 대회는 대한 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동검도는 여러 협회가 존재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해동검도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한국 해동검도, 국제 해동검도, 한국 해동검도총연맹 등등 많은 협회가 있으므로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목검을 사용해 검법 위주로 수련하거나 대한 검도회처럼 호구를 착용하고 수련하는 등 각 협회마다 수련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Q 검도의 장점은?

A 가장 큰 장점은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검도장에서 수련하는 대다수 수련생들이 체중 감량 효과를 봤습니다. 한 분은 올해 검도를 배우셔서 현재 4개월째 수련 중이신데 20kg 감량에 성공하셨습니다. 꾸준히 수련하시는 다른 분들도 다이어트는 물론 자세 교정



및 건강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도는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하며 할 수 있으며 실내 운동이다 보니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몸이 허약하거나 집중력 향상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에게 부모들이 검도를 권유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검도를 해야 한다.”라고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A 발표를 할 때마다 긴장한 나머지 준비했던 것들을 못하고 실수하거나 소심한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검도에서는 기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검도장에 오신 분들은 부끄러워서 기합소리를 못내지만 적응하게 되면 목소리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검도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닌 상대와 함께 하는 대련 무술이므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검도장에 오게 되면 다양한 연령대 분들과 수련을 하므로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초보자들이 검도를 시작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A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생활 반경에 가까운 검도장을 찾아야 합니다. 자주 찾아서 수련을 해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나 학교 가까운 곳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검도를 등록하기 전 본인과 맞는 수련방법을 정한 뒤 대한검도나 해동검도 단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자는 승단심사를 앞두고 검도를 그만뒀지만 인터뷰 진행을 위해 검도장을 방문한 뒤 다시 시작하기 위해 도복을 세탁했다. 검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기합 소리와 죽도 부딪히는 소리가 그리웠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검도의 가장 큰 매력은 남성들과의 대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축구를 좋아하지만 남성들과 경기를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는 걸로 대리만족을 했다. 하지만 검도의 경우 2단 정도 된 수련자라면 충분히 남성들과 대련을 할 수 있기에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검도는 위험할 거라 생각하지만 호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므로 부상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

호구를 착용하고 기합, 검, 몸의 기검체가 하나 되어 검을 운용하며 대련을 하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울려넘은 죽도를 들고 내리치며 검도만이 주는 매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오늘도 우리는 공을 향해 달린다, 동국대 FC 풋다걸스

공을 차는 것에 있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한 종목이다. 대학 동아리에서도 축구 동아리의 대다수 구성은 남성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편견을 깨고 직접 공을 드리블 하고 상대 골대를 향하여 슛을 차고, 또 학교의 여학생들에게 축구를 '직접' 플레이 하는 매력을 전달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

바로 동국대학교 여자 축구 동아리 <FC 풋다걸스>이다!

FC 풋다걸스? 솔직히 이름을 보았을 때 부터 뭔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동아리 이름이 특이해서 준비해 온 다른 질문을 뒤로하고, 시작부터 바로 동아리의 이름의 태동에 관해서 주장한테 물어보았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이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어요. 동아리를 알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니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여러 안들이 오고 가는 도중에 누가, 정확하게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풋다걸스 어때?" 라고 말했는데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웃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바로 결정했죠". 진지했던 고민에 비해 우연찮게 만들어진 명칭이지만 지금은 동아리를 가장 잘 표현한 이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성축구동아리 FC 풋다걸스, 누가 봐도 동국대 동아리 같지 않나요?"라며 주장이자 창단 맴버인 경찰행정학과 4학년 백선희 학생은 유쾌하게 답변을 마무리했다.

FC 풋다걸스는 활동한지 1년 정도 된 '신생팀'이다. 煎 동국대 축구부 감독이었던 김종필 감독님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만든 축구교실에 참여하던 주장 백선희 학생. 축구 교실 측에서 학교 여학생들을 모아 축구 동아리로 팀을 만들어 보자 하는 제안을 듣고, 초기에는 생각보다 사람들 모집하기 힘들었으나 뜻이 맞는 친구들과 백방으로 뛰며 17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시



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동아리 활동은 화, 목 이틀씩 모여서 간단한 스트레칭과 기본기 연습, 그리고 팀을 나누어 미니게임을 하며 운동을 한다고 한다. 이 중 기초적인 기본기 연습은 학교 축구부 코치님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선수출신으로 축구를 했던 현 부주장 화학공학과 김영아 학생의 역할도 크다고 한다. 동아리가 시작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축구의 어떤 매력이 FC 풋다걸스를 이끌어 내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여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질문을 듣자마자 7년 여정도 선수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선수생활 대신 대학생의 길을 택한 부주장 김영아 학생은 "남자의 스포츠라는 인식을 넘어서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는 데

에 재미가 있어요."라고 패기 있게 답변을 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다는 주장 백선희 학생은 서로에게 패스를 하고 골대를 보며 같이 뛰고 공을 향해 뭉치는 '여러 명이 같이 플레이 하는 팀 스포츠'라는 점에서 축구의 매력을 느낀다고 하였다.

모든 부원의 실력이 특출 나게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FC 풋다걸스 팀원들은 모이면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축구'를 플레이 한다고 한다. 승부를 떠나서 매 순간 열정적이고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풋다걸스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했다. 더불어 부원들의 친화력이 뛰어나 누구나 동아리에 한 번 참여하기만 하면 금방 친해지고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도 풋다걸스의 장점이라고. 동아리 활동에 대한 문제점이나 궁금증이 있을 때는 다른 대학의 여자 축구동아리 장들이 모인 메신저로 정보와 이야기를 공유한다고 한다. 생각보다 서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동아리 시작 때도 성균관대 여자 축구 동아리 주장으로 있는 백선



희 학생의 친구에게 도움과 조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동아리 활동은 즐겁지만 아직은 제약을 받는 부분도 많다고 한다. 학교의 운동장은 하나고, 활용하고 싶어하는 동아리는 많은데 대다수가 남성 운동 동아리이기 때문에 사용권 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리기도 한다고 한다. 아직 학교의 중앙 동아리로 공식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지원이 없다고 한다. 막상 축구에 관심이 있어 찾아온 여학생들도 동아리의 조건을 보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지원금 같은 부분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구부에서 지원받은 용품과 서로 사비를 털어서 장만한 축구 용품들을 따로 보관할 동아리 방이나 창고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 그래서 백선희 학생과 김영아 학생은 올해 풋다걸스의 목표 중 하나는 학교의 중앙 동아리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 밝혔다.

"우선 올해는 FC 풋다걸스 팀으로 첫 대회를 참가하는 것이 목표예요, 아직 어느 대회에 참가할지 정하지 않았고 막상 대회에 참가 해도 경기 경험이 부족하여 쉽지는 않겠지만, 대회 참가를 통해서 그 자체로 경험을 쌓고, 성적보다는 우리끼리 한번 나가서 즐겨보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저희의 인지도를 많이 올리는 것 또한 목표입니다." 라고 주장 백선희 학생은 포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격, 미

드필더, 수비 다방면에서 팔방미인 역할을 하는 부주장 김영아 학생에 대한 엄청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대회 참가를 통해 실적을 쌓고 더 많은 동아리 인원들을 모아서 학교의 동아리 기준에 맞추어서 정식 동아리로 신청하는 것이 올해의 최종적인 목표라 했다.

백선희, 김영아 두 학생은 자신들이 주장과 부주장을 맡는 동안 힘이 들어도 FC 풋다걸스가 학교 내에서 좀더 탄탄하게 자리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주장 김영아 학생은 궁극적으로 FC 풋다걸스가 동국대의 많은 여학생들에게 축구라는 스포츠를 여성도 충분히 직접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접하는 계기가 되어, 남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야 축구 한 판 하러 가자' 처럼 여학생들도 모여 축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동아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장 백선희 학생은 FC 풋다걸스가 꾸준히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서로 모여서 축구를 즐기고 서로 축구를 통해 알아가고 친목을 다지는 그런 동아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거기에 주장 백선희 학생은 언젠가 풋다걸스 YB와 OB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있도록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FC 풋다걸스는 언제나 상시로 부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언제 어느 때 모든 친화력 넘치는 부원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축구를 사랑하고 FC 풋다걸스 가입에 관심이 있는 동국대 여학생들은 주장 백선희



학생(010-9266-2285)나 부주장 김영아 학생 (019-4403-5250)에게 연락하면 FC 풋다걸스 관련 자세한 사항을 들어볼 수 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꿈을 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라 하였다. 이제 막 꿈을 품고 뜻을 올린 FC 풋다걸스. 그녀들의 꿈, 동국대에서 여학생들이 모여 축구를 꾸준히 즐기는 문화가 그녀들의 바램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글/김윤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김민수(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사진/김윤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FC풋다걸스 제공



역대 대학스포츠 기자단이 바라 본 대학스포츠리그

— 체대생 : 김예슬(47기, 57기/연세대 스포츠레저), 이태민(67기, 77기/인하대 체육교육), 장도영(77기/경희대 스포츠지도학)

2014시즌이 막을 내리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는 더 나은 대학스포츠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이번 시즌은 좀 더 보완되고 발전된 리그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현재 2015 대학스포츠리그 개막 후, 각 대학팀들은 탐색전을 끝내고 장기전에 돌입했다. 어느 정도 각 팀의 전력이 드러난 만큼 그 열기는 점점 더해지고 있다.

지난 1월 호와 3월 호에서 대학스포츠의 주인공 학생선수들과 그들을 이끄는 코치진들의 입을 통해 그들이 느낀 대학스포츠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5월 호에서는 전국 각지의 경기장을 누비며 대학스포츠를 취재해온 '역대 대학스포츠 기자단(체대생)'이 모여 대학스포츠리그에 대한 느낌과 경험들을 들어보았다. 4·5월호 '역대 대학스포츠 기자단' 편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체대생과 비체대생으로 파트를 나누어 진행했다.

* * *

PART 2.

'역대 대학스포츠 기자단'

체대생 편

우리는 체대생이다! 우연인 듯 우연 아닌 필연으로 스포츠와 얽힌 체대생들. 스스로의 만족에 그쳤던 스포츠에서 얻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더 나은 대학스포츠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며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빠져들어 언제 어디서든 스포츠와 함께하는 김예슬(연세대 스포츠레저/ 이하 예슬) 기자와 이태민(인하대 체육교육/ 이하 태민) 기자, 그리고 장도영(경희대 스포츠지도학/ 이하 도영) 기자. 매번 경기가 있을 때마다 달려가 경기를 보고, 경기 소식을 전하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 기자단으로서 활동한 이들이 바라본 대학스포츠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Q)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예슬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스포츠레저학과 김예슬입니다. KUSF 기자단 4, 5기로 활동했고 지금은 대학스포츠 리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저는 인하대 체육교육과이고, KUSF 기자단 6, 7기로 지난 2014년도에 활동했습니다.

도영 안녕하세요. 저는 배구선수 출신이고, 경희대 스포츠지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KUSF 기자단 7기입니다.

Q) 체대생이라면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더 많은 텐데 굳이 '대학'스포츠 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태민 스포츠에서 가장 아마추어리즘에 부합하는 대학스포츠를 많이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어요. 또 친한 동기가 뛰고 있는 리그이기도 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도영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현역 배구선수로서 활동을 했었어요. 비록 지금은 운동을 그만뒀지만 스포츠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찾던 중 기자가 눈에 띄었고, 대학생으로서 대학스포츠가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대학스포츠 기자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특히 배구를 담당했었는데 배구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당연히 배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배구란 종목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선택했어요.

Q) 체대생이 바라보는 대학스포츠리그는 어떤가요?

A) 예슬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시도되고 있고, 점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연세대는 대학리그 참여 학교 중 참여 종목도 많고, 선수층도 두텁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학스포츠 보게 되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KUSF 기자단뿐만 아니라 각 학교 스포츠 매거진이 생기고, 작년에는 서포터즈도 출범하면서 더 많은 관심이 찾아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태민 알아갈수록 아쉬운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생들이 대학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관심을 갖고 경기를 보려고 해도 경기시간이 학생들 수업시간과 겹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를 보기 어려워요.

Q) 본인의 학교에서 대학스포츠리그가 열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다면 그 인식은 어떠했나요? (김예슬-연대, 이태민-인하대, 장도영-경희대)

A) 예슬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기자단 활동 전에는 그저 동기들이 뛰는 무대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자단 활동 후에는 대학리그는 선수들이 주인공이지만 그 주인은 학생들이고, 학교관계자라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뛰는 무대를 빛내기 위해 기자로서 또 학생으로서 대회를 알리고, 선수들을 알리려고 노력중이에요.

태민 체대생이라는 특성 때문에 선수들과 같이 운동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 기회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스포츠를 접하고 경기도 관람할 수 있었어요.

사실 대학스포츠리그를 알고 있었지만 관심은 없었어요. 하지만 선수 친구들이랑 수업을 듣고, 이야기하다 보니 운동과 학교생활에서의 힘든 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더 궁금해져서 경기도 보게 되고,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도영 선수였으니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부 기숙사와 식당이 따로 있어 모든 운동부 선수들이 함께 숙소 생활을 해요. 때문에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다른 종목에 흥미가 생겨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배구부 친구들이랑 다른 종목 선수들의 경기도 보러갔던 기억도 나네요(웃음).

Q) 대학스포츠 인터뷰 요청 당시, 대학스포츠팀 감독·선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태민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인기 종목이 아닌 이상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반, 어색한 것 반이었던 것 같아요.

도영 처음에는 정식 기자가 아니라 학생 기자 신분이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정말 지도자와 선수 분들이 협조를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되게 무서운 이미지였던 분들도 직접 만나서 취재와 인터뷰를 해보니가 따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인터뷰를 빌려 협조를 잘해주신 지도자와 선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Q) 현재 대학스포츠 농구와 배구 종목에서 Home&Away(리그제)로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Home& Away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예슬 홈&어웨이를 진행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홈의 이점과 서포터즈와 학교 학생들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구장이 없는 학교는 더 소외감을 느끼고,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웨이&어웨이 경기인 셈이어서 그런 점은 조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민 선수들 학습권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학습을 위해 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홈&어웨이와 리그제는 좋은 방법이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지금 당장 선수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그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홈&어웨이와 학습권 보장과는 따로 노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안주하지 말고 더 보완해야 해요.

도영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선수와 기자 두 가지로서 경험을 했는데, 선수들이 땀뻘한 일정 때문에 조금 힘들진 몰라도 어차피 모두 프로에 가면 긴 리그 여정을 소화해야 할 것이니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또 리그가 생기기 전까지는 대부분 대회들이 지방에서 열려 인지도를 높이고 관중들을 불러일으키기 힘들었지만 리그제가 생기고 대학교 내에서 경기를 펼쳐 예전과 비해 대학스포츠가 인지도와 관중수가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김예슬(4기, 5기/연세대 스포츠레저)



이태민(6기, 7기/인하대 체육교육)



장도영(7기/경희대 스포츠지도학)

Q) 2014대학스포츠리그래서 농구·배구 서포터즈가 출범하면서 대학스포츠리그래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예슬 일단 대회의 일정이나 어떤 선수, 어떤 팀이 있는지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홍보가 없었고, 학교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서포터즈가 출범한 후에는 학교에 포스터도 많이 붙고, SNS에서도 대학스포츠 리그래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Q) 기자단을 하면서 많은 경기장을 다니셨을 텐데 각 대학 경기장에서 대학스포츠 리그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셨나요?

A) 태민 '그들이 사는 세상' 기획 기사를 썼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중 인하대 여자육상부 취재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도 체대생이고, 항상 운동을 하고 또 해왔기 때문에 선수들과 비등할 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훈련이 너무 힘들었고,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어요.

도영 제가 대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던 터라 대학배구 팀 지도자분들과 선수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기자활동 시작할 때 제가 선수였던 사람이라 좋은 점도 많았지만 컨택이나 취재를 하는 면에선 부담이 많이 됐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코트장에서 볼을 만지고 있던 놈이 기자라고 하면서 취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도 지도자분들과 선수들을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반응이 다들 좋아서 지금은 부담을 다 내려놓고 즐겁게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Q)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에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에게 매년 말, 상을 주고 격려를 하며, 학생선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A) 예슬 학생선수에 대한 커리큘럼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무턱대고 지금 진행되는 커리큘럼 내에서 '공부하는 학생선수'가 되어라, 수업에 꼭 들어가라, 일정 학점 이상을 받아라, 그래야 리그에 참여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학생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스포츠심리, 재활치료, 스포츠레저심리 등의 수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거나, 학생선수들의 수준을 고려한 교양수업이 진행돼야 수업 참석에 대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민 공부하는 학생선수는 당연해야 할 것인데 공부 잘한다고 상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정 인물만이 아닌 모두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영 제가 공부하는 학생선수가 되려고 했던 경험자로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선수시절 때는 운동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루 일상이 운동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는 멀리하게 됐어요. 제 주변에도 운동을 그만둔 친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신세한탄을 하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선수들도 이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공부에도 신경을 써야 나중에 부상을 당해 안타깝게 그만둘 일이 생기거나 프로에 갔다가 은퇴를 했을 때 2의 삶, 제 3의 삶을 별 탈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이유도 바로 그 방향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운동을 그만둬도 다른 것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선 아직 턱없이 부족해 많이 노력해야죠.

Q) 대학스포츠의 매력을 말씀해주세요.

A) 예슬 내 친구들의 무대라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친구가 아니더라도요!

도영 프로는 최고의 실력자들인 선수들이 모여 보다 완벽하고 파워풀하고 화려한 경기를 보여준다면 대학스포츠는 아마추어와 프로 사이에 있는 선수들이 모여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흥미롭게 경기를 즐길 수 있어요. 이것이 대학스포츠만의 강점인 것 같아요. 또 대학생답게 아가자기하고, 패기 있는 경기가 수도 없이 많이 펼쳐진다는 것 또한 강점이죠. 전 개인적으로 프로보다 대학스포츠가 더 매력 있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대학스포츠리그래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A) 예슬 얼마 전 연세대가 일반학생 중에서 농구부원을 뽑겠다는 공고가 나왔어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연세대니까 할 수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대학스포츠리그래를 리드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 연세대가 먼저 변화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 옹기 있는 선택이었고,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기 때문에 주력하는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 대학선수들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어요.

태민 일단 학생들이 대학스포츠리그래를 관람 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부분이고, 그렇게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경기를 보게 되면 관중이 조금씩 생기고, 결국에는 대학스포츠리그래가 형성되어 인기가 올라가고, 결국 대학스포츠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그 먼 이야기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기자단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지지치 않고 대학스포츠를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경기장을 뛰어다녔을 대학스포츠 기자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설립과 함께 대학스포츠를 취재하면서 대학스포츠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한 이들이 바라본 대학스포츠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며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대학스포츠에 박수를 보낸다. 현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기자단 8기가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도 대학스포츠 경기장으로 행한다.

글/ 박수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임예람(KUSF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사진/ 임예람(KUSF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명예기자)

본인 제공



아이스하키 독립구단 웨이브즈

김홍일 대표

대한민국은 아이스하키 불모지나 다름없다. 실업팀은 세 팀에 불과하다. 그 아래의 대학팀은 다섯 팀이 있지만 경희대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3년 앞둔 시점에서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좌절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리그 개막을 앞둔 독립리그의 존재가 그 이유이다. 한국아이스하키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독립구단 웨이브즈와 한국 독립아이스하키리그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홍일 대표를 만나고 왔다.

* * *

삶의 방향이 정해진 캐나다 유학 시절

선수와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이스하키를 시작하게 된 김홍일 대표는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된 시기가 있었다. 고1 무렵 약 1년 동안 캐나다에 머문 기간이었다. 캐나다에서 선수로 뛰기 위해 건너갔지만 그의 눈에 띈 건 따로 있었다. “재밌게도 뛰고 많이 배웠지만 배웠던 건 아이스하키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과 그들이 하키를 다루는 모습이었다.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선수보다는 다른 데에 있었음은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다.” 리그를 쉬는 휴일 동안 영어공부를 하거나 몸을 키우는 대신 도시락을 싸들고 링크장에서 지내면서 보고 느낀 경험은 김홍일 대표의 현재 모습을 만든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

아이스하키계의 오아시스, 독립리그

연세대와 안양 한라를 거쳐 국가대표까지 탄탄대로를 걸었던 그였다. 하지만 ‘하키 잘하는 선수’라는 생각과 함께 은퇴를 했다. 기존의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김홍일 대표는 또 다른 길을 선택했다. “저와는 다르게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미 은퇴한 동료들과 함께 내가 운동하면서 느꼈던 방향으로 대한민국 아이스하키를 만들어가고 싶었다. 그 방향이란 건 바로 스토리였다.” 재도전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독립구단의 탄생은 한 줄기 빛이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훈련을 하고 구단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제는 리그를 치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4명의 선수가 상위 리그의 개념인 아시아리그에 진출하고 42세의 선수가 고등학교 아이스하키 코치로 부임하는 등 김홍일 대표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는 중이다.

하키와 소통하면서 살고 싶다

웨이브즈와 한국독립아이스하키리그는 성공적인 스포츠마케팅 모델로 꼽힌다. 구단 창단 초기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하기도 했고 지금도 여러 기업이 독립구단과 리그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해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을 후원하고 있다. 김홍일 대표는 여기서 안주할 생각은 없다. “가장 이상적인 건 스폰서가 없는 것이다. 기업이 후원해주는 금액에 맞게 리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소년 교실과 같은 이익을 창출해 리그를 키워 전국적으로 하키를 알게 하고 싶다.” 이를 위해 재단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고 김홍일 대표는 귀띔해줬다. 그는 하키로 인해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키의 저변이 확대되어 하키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지는 게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도 좋고 지금 하키와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 삶이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키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하키를 다루는 사람들이 돼라

독립리그와 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에게 차후 독립리그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는 대학아이스하키 선수들에게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한마디를 남겼다. “하키를 잘해서 대학을 간 선수들이 아닌가.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에서 변화의 시도는 없었다. 저는 지금부터 대학에서 졸업을 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아이스하키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키를 하는 운동으로 끝내지 말고 다뤘으면 좋겠다. 학교라는 방어막이 있는 곳에서 훈련뿐만 아니라 하키를 가르쳐보기도 하고 링크장과 리그에도 관심을 가져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키라는 종목에 접목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월드스타’
김세진 감독

얼마 전 배구계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창단 2년차에 OK저축은행이 7년 연속 우승을 독식한 '절대강자' 삼성화재를 꺾으며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일궈냈다. 기적을 만들어낸 그 중심에는 한국배구의 위상을 드높인 '월드스타' 김세진 감독이 있었다.

* * *

김 감독의 배구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배구를 처음 시작해 고교시절까지 7년간 단신 세터로 뛰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20cm 이상 크면서 공격수로 전향했다.

한양대 진학 후 송만덕 감독의 권유로 왼손잡이 라이트 공격수가 되기 위해 홀로 체육관에서 왼손으로 스파이크를 때리며 연습했다. 심지어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쓰는 일상생활에서도 왼손을 사용하며 수개월간 단단히 노력한 끝에 그는 라이트 공격수로는 드물게 왼손잡이가 됐다.

1994년, 2월 제11회 대통령배 배구 남자대학부 결승 시리즈 1,2차전에서 절정의 기량을 발휘한 그는 한양대를 대학부 챔피언으로 이끌었다.

이번 대회 대학부 블로킹 부문 1.56개(세트당)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으며 시간차공격에서 118개의 공격 중 24득점, 49득권을 올려 성공률 61.86%로 최고의 공격수로 떠올랐다.

김세진은 1994년 월드리그 남자배구대회에 출전해 공격과 블로킹에서 탁월한 모습을 선보이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한국은 비록 예선에서 조 3위로 탈락했지만 12개의 게임에 출전해 349개의 공격을 성공시킨 그는 최고 공격상을 차지하며 '월드스타'로 거듭났다.



김세진 고별전 한양'우승사례'

대학배구 흥익놀러

한양대가 96 가을철 전국대학배
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했다.

한대는 24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이 대회 마지막날 경기에서 홈팀대를 풀세트 접전끝에 3-2로 어렵게 이겨 풀리그 3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대는 이날 승리로 지난 89년 대회서 정상을 차지한 이래 6년만에 패권을 되찾는 감격을 안았다.

한대의 승리는 국가대표 김세진
의 고별무대로서 빛을 더했다.

내년 졸업을 앞두고 이미 신생 팀 삼성에 스카우트된 김세진은 대학생으로서는 마지막 출전장인 이날 무릎연골과열 부상에도 불구하고 선전해 팀 승리를 이끌었다.

첫세트와 2세트를 각각 5점과 8점만을 내주고 승리한 한대는 3-4

세트서 역시 이 대회를 끝으로 졸업하는 홍익대의 국가대표 왼쪽 구준희와 2년생 센터 방신봉, 왼쪽 손재홍의 분전에 맞쳐 각각 9점과 11점만을 얻었다. 02에서 세트점 2-2

그러나 마지막 5세트서 16-14, 6박의 차로 승리를 굳혔다.

● 플리그 마지막날

☆ 한양대(3층) 3-2 홍익대(2층1패)(15:5 / 15:8 / 9:15 / 11:15)

이영일 기자

배구 '월드스타' 김세진

평범한 단신세서
세계최고 공격수로

물 맑고 산 깊은 충북
유복한 가정의 2남 중
이 막내였던 김세진(24
세)

그의 몸은 소박했다. #
자로 대항에 진학해 고령
에서 복음교사가 되는 것

올해 그리 크지 않아서
옥천 상암초등학교 4학
부터 배구부를 만지기 시
는 옥천을 옥천초고로

키도 1m80대에 머털려
수는 업무도 못내고 주로
배급하는 세력으로 똘똘

고령을 방문한 이듬해인
1970년 6월 1일

정말 고마웠다. 병문방에서
받은 것만으로도 감지해지겠
는 그런 얼굴의 송경록은 이
아직까지도

한양대 진학 후 미술이 자
어느날, 송김복이 찾아 그를
했다.

*나 이제부터 왼손잡이가 돼!

지 않음과, "네?" "우리 팀에
출판권 리ایت. 공격수가 없거든.
내리면, 한 번 더 공격할 수 있

그게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
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이웃집 아저씨

서 "저음사자"로 변해 버린 송강
목의 호랑소리를 들으며 정말 심

대학때 왼손잡이 뽀신
은종일 체육관에서 굴렀다
기도 남기고

탄숨에 대학최고가 됐다
그를 위한 무대 월드컵

제가 그를 주목한다

나고도 매일 체육관에서 권손
로 수백개의 스파이크를 때
아 왔다.

정력을 대나 글을 쓸 때도 인
을 사용해야 했다. 몇개월

지나자 왼손에 검이 왔다.

리기 시작하자 갈채가 쏟아졌다. 운도 따랐다. 자신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키가 훌쩍 크었다.

출입한 때에는 어느새 2m의 거리가 돼 있었다. 단숨에

94월드리그 공격왕, 96년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 그리고 스포츠라이프를 받았던 96년...

1961년 무릎 수술을 받은 바에
한 골절이 있었지만 심정희
장단 첫째에 유과라고 장상을
는 데 걸렸었다.

그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물
자리에서도 세계 최고의 오른
공격수라는

정리수라는 명칭에 걸맞게 명
을 붙이며 팀의 4연승을 주도
했다.

“...은 변해야 산다잖아요.”
(권운일기자)



이제야 그는 고교때까지는 옳은 생각이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최고의 공격수로 인정받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1995년 졸업을 앞둔 대학무대 마지막 대회에서 홍익대를 3-2로 이기며 6년 만에 한양대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한양대를 졸업한 뒤, 1995년 삼성화재 창단 멤버로 입단한 그는 배구계의 거장 신치용 감독과 함께 겨울리그 9연패의 우승을 일궈냈으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최고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프로에 입단 후 무릎, 허리 통증은 물론 오른쪽 무릎 부상과 수술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재활에 성공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된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13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했으며 2006년 현역에서 은퇴할 때까지 한국배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였던 김세진은 2013년 신생구단인 OK저축은행 감독을 맡게 된다.

사실 야구, 축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에서는 슈퍼스타 출신들이 지도자로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다. 이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쉽지 않아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던데 김세진 감독은 달랐다. 그는 스킨십을 강조하며 이른바 어깨동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선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며 결속력을 다진 덕분에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현역 시절 배구 선수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새로운 시도를 했던 김세진, 이제 최고의 선수에서 최고의 감독 반열에 올라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쓰길 기대해본다.

KUSF 대학스포츠 포스트 · TV캐스트 개설, 대학스포츠 콘텐츠 노출 다양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이하 KUSF)가 대학스포츠 전문 네이버 포스트와 TV캐스트 채널을 신설했다. 먼저 '네이버 포스트'는 블로그와 같이 글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로 확인하기에 다소 불편했던 글 중심 콘텐츠를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KUSF는 이러한 네이버 포스트의 기능을 고려, 대학스포츠 블로그 및 웹진에 게재된 기사 중 주요 기사의 축약본을 게재하는 등 그 특장점을 십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 테마를 바탕으로 하는 영상 채널 서비스 '네이버 TV캐스트'에서도 대학스포츠 채널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KUSF 대학스포츠TV>라는 이름의 이 채널은 대학스포츠 인터넷방송 <대학스포츠TV>와 함께 대학스포츠계의 독자적인 영상 채널로서 자리 잡을 한편, 웹진 커버스토리 인터뷰 영상 및 서포터즈 영상, 기자단의 취재 영상 등 경기 영상 외의 대학스포츠 관련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KUSF는 두 매체를 통해 대학스포츠 관련 콘텐츠 노출 창구의 다양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번 시도가 대학스포츠 인지도 강화 및 홍보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적인 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USF 대학스포츠 [네이버 포스트] : <http://post.naver.com/my.nhn?memberNo=1352526>

KUSF 대학스포츠TV [네이버 TV캐스트] : <http://tvcast.naver.com/kusfs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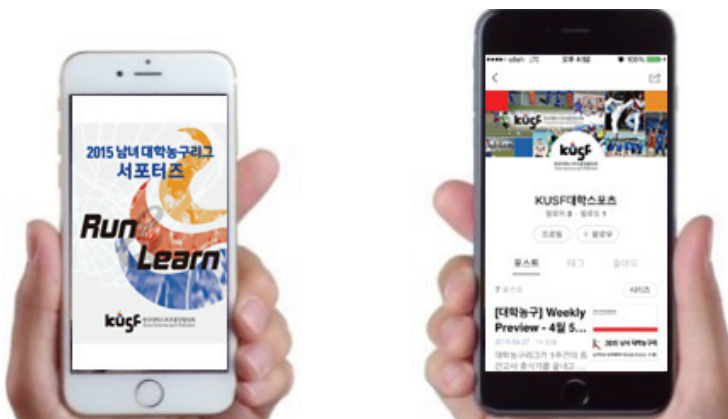


사진 : 포스트 & 캐스트 캡처 화면

대학축구 서포터즈의 첫발 <2015 U리그 서포터즈> 출범

2015년 4월, 대학축구에서 첫 서포터즈가 출범함으로써 대학스포츠리그 모든 종목의 서포터즈 모집이 완료됐다. 실내종목인 대학농구리그와 대학배구리그에서는 2014 시즌을 기점으로 서포터즈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대학축구리그인 U리그에서는 종목 특성상의 문제로 시행을 잠시 보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5 시즌을 맞이하여 U리그에서도 드디어 서포터즈가 첫발을 내디뎠다.

전체적인 모집 전형은 농구·배구 서포터즈와 같이 각 대학의 체육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모집 과정은 4월 17일(금)부터 4월 26일(일)까지 약 1주일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서포터즈 신청 대상이 리그 참가 대학의 재·휴학생(대학원생 포함)이라는 점은 U리그 서포터즈도 다른 종목의 서포터즈와 같았으나 야외 종목이라는 특성상 일차적으로 대학이 홈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방식을 달리했다.

이번 2015 U리그 서포터즈는 대학축구의 제1기 서포터즈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만큼 앞으로 1기 서포터즈들이 대학축구에서 어떠한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어떠한 대학스포츠 문화를 만들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USF 대학스포츠
웹진 5월호취재
후일담

변화는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익숙한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시도는 많이 했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 만큼 결과도 얻어야 할 텐데요.

권오준(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매달 이렇게 다같이 함께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너무 뿌듯해요! 웹진 기사 기획한다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하고 멀리 취재도 같이 가고 서로 배려해주는 팀원들한테 정말 고마워요 ㅎㅎ

김보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오매불망 리그시작을 기다렸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리그 중반부를 향해가고 있네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커버스토리에서 '의형제 특집'을 했는데 대학스포츠만의 열정과 팀워크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칠 때도 많지만 항상 우리를 응원해 주는 가족들을 떠올리며 힘찬 하루 하루가 되길 바라요. 평소엔 부끄럽지만 가정의 달을 계기로 삼아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김선우(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웹진팀에 합류 이후 첫 기사가 나가는 호입니다. 패기롭게 시작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재에 응해주신 동아리, 코치, 선수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핑크빛이 가득하기도 했고, 잊지 말고 기억할 것도, 반성할 것도 많은 참 의미 깊은 한 달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재미있는 기사와 기획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찬(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이번 달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대학스포츠블로그와 웹진 모두에서 찾아보기 힘든 종목, 배드민턴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대학 배드민턴계 절대강자인 한국체육대학교 배드민턴부는 그 명성만큼이나 훈련장의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즐기는 배드민턴이지만 선수들의 손에서는 그 긴박함과 긴장감이 연출되는데요. 배드민턴의 새로운 매력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체대 배드민턴부를 통해 하나씩 알아 가시길 추천합니다!

이와 함께 포토타임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4학년이 된 선수들의 1학년 시절을 되돌아 봤는데요. 사진 속에서 묻어나는 선수들의 등적함은 3년이란 시간을 실감토록 합니다. 모두들 촬영을 하면서 많이 부끄러웠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시몬, 김병욱, 황두연 선수의 대학 리그 마지막 시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다영(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제가 대학스포츠 기자가 되기 위해 지원서에 작성했던 첫 기사가 바로 홍익대 배구부의 경기였는데요~ 그때의 홍익대의 조직력을 보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조직력은 단언컨대 최고가 아닐 수 없네요! 형제보다 더 가깝게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배구, 대학스포츠경기 더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미현(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

인터뷰를 진행한 25일에는 정규리그 개막전 마지막 시범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아이스하키를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스포츠보다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종목이었습니다.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있다면 5월 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열리는 한국독립아이스하키리그에 주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규호(KUSF 대학생 기자단 웹진팀)